

아태아 15년의 평가와 제안 (설립취지를 기준으로)

김활영(hy4god@gmail.com)

1. 설립

현장에서 귀국하여 10년 가까이 본부 사역을 마치고 다시 선교현장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도전을 받은 사역분야는 신학교이었다. 선교사들도 현지인들도 같은 목소리로 신학교는 이대로는 아니된다 는 질문이었다. “신학교(PTS)를 어떻게 하렵니까?” 이 질문은 GMS의 여러 현장에서도 신학교들이 유행처럼 속속 설립 운영되고 있던 때였기에 본부에서부터 여러 곳으로 부터 들어오고 있던 터였다. 그래서 먼저 이웃에 있는 아시아 지역 여러 신학교 관련자들을 불러 모아서 **신학교육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며칠 동안 의견을 나누었다. 이 모임은 토론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아시아 신학교육협의회”(Association of Theological Education in Asia for GMS, ATEA) 조직하였다. ATEA는 2004년 6월 PTS에서 조직한 후 매년 한 번씩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금년이 15년째 모이고 있다.

2. 역사

그렇지만 ATEA 역사는¹ 총회 선교부가 1994년 예루살렘에 소집한 선임 선교사들의 모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간다. 40여명의 참석자들이 여러 선교 현장 사역을 두고 고민하는 중에 신학교육 문제에 이르러 시급하다고 내린 결론으로 선교지 신학교의 **교수요원 양성** 과제였고, 결국은 연구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되었던 결과가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의 국제사역과(Global Ministry)란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 책임을 맡아 총신교수로 귀국한데서부터 나의 사역은 본부와 현장이 뒤섞이게 되었고 신학교육 문제에 깊이 관여하게 되어 버렸다. 현장의 신학교육을 담당할 교수요원을 선교지 교회와 선교사 가운데서 양성한다는 취지의 이 프로그램은, 소수의 현지인과 수 백 명의 선교사들이 참여하여 10년 동안 지속되었다. 아시아 지역을 순방하다가 ATEA 창립 모임에 함께했던 김의원 총장은 이 프로그램을 총신에 두기 보다는 선교현장으로 옮길 것을 추진하여, Global Ministry 프로그램은 2006년에 마닐라에 “총신국제대학원”(Chongsin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CIGS) 설립으로 발전되었다. 필리핀 장로회신학교(PTS) 캠퍼스에서 CIGS는 5년간 운영되다가, 2011년에 마무리 책임을 ATEA에 넘겨서 2013년에 첫 학위 수여식과 함께 설립 10년만에 문을 닫았다.

3. 발전

이런 와중에서 제 5회 방콕 모임에서 총신국제 대학원 설립과 운영관계로 ATEA의 설립 취지는 당면한 신학교육 방법문제에 묻혀버리고, CIGS 운영의 견해차이로 관계자들이 갈

¹ 초기의 ATEA 역사는 제8회 이스탄불 모임에서 발제한 “ATEA를 통한 지도자 양성의 역사와 필요성” 과 “ATEA의 어제와 오늘” 같은 발간사에서 더 자세하게 찾아 볼수 있다. (*아시아 신학 저널 제 2호 pp 16-28, 152-169*, 장완익 편, 서울, ATEA, 2013)

등을 겪는사이에 실망한 선교사들이 ATEA의 설립 당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다음해 제 6차 뱅갈로 신학교육 포럼에서는 CIGS와도 결별하고, ATEA의 for GMS란 꼬리를 떼어 버리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로 하였다. 즉 신학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 갔으며, 신학교육 혹은 지도자 양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깊어지고 넓어져 갔다. 그래서 일곱번째 (2010년) 홍콩 포럼에서는 교회론을 주제로 모여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다. 패러다임 전환이란 기치를 걸고 교회의 본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리며 교회를 목양하는 전통적인 목사와 교사를 양성하는 신학교육(Bible School 혹은 Seminary)을 뛰어 넘어 사도와 전도자 즉 선교 지도자(엡 4:11) 훈련으로까지 비약하는 제안까지 있었다. 그러자 이 자리에 함께 하였던 현대 한국 선교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조동진 박사는 박수와 동의를 표시하면서 실천을 주저 말라는 격려까지 하였다. 자연스레 신학교 뿐 아니라 선교훈련원들도 참여하게 되었고 토론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졌다. ATEA가 “Theological Education” 에서 “Training & Education”으로 논의의 범위와 참여 대상이 아시아 에서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그후에 실제로 ATEA는 “지도자 양성을 위한 온누리 연맹”(Alliance for Training and Education in All-Nations, ATEA) 으로 조직의 성격과 이름조차 바뀌게 된다(2014년 아테네 포럼).

이렇게 토론 내용이 신학교를 넘어서 선교 전반으로 넓고 깊어져 갔고, 참여자도 전 지구촌으로 확대 되었으나, 막상 토론의 결과를 현장에서 실험하는 용기를 가진 회원들은 많지 않았다. 오히려 인준문제에 관심을 보인 새로운 참여자들의 요청에 따라 전통적인 Accreditation 제도를 발전시켰다. 사실 ATEA가 CIGS 첫 수료식과 동시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훈련원 혹은 교육 기관, 즉 CIGS를 대신할 기구 설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임하였다. 위원회는 두렵한 결론을 얻지 못하자 심창섭 위원에게 일임하였다. 상당수 회원들의 지지를 받고 제출한 심교수가 내어 놓은 또 하나의 CIGS 와 같은 전통적인 대학원 (국제개발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GSID)을 ATEA는 수용하지 못했다. 대신 제 11회 아테네 포럼에서 “아테아 대학원”(AT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II)을 조직하기로 결정하고 2014년 서울에서 개원하였다.

개원후 5년동안 AII는 참여자 혹은 회원(개인, 기관)에게 “연구원” (Researcher, Senior Researcher) 이란 신분이 주어지고 , 연구원은 두 방면으로 지도자 양성 사역에 매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각 지역과 족속을따라 , 상황(context)에 걸맞는 연대와 협력으로 각자 프로그램을 개발 발전시키고, 인준과 격려로 실적을 확인하는 사역이다. 다른 한 편은, 개 Researcher들 고유의 사역을 개발하고 실험하고 반성하여 학문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서 주님이 주신 개인적 소명을 다 이루게 서로 돕는 사역이다.

이렇게 ATEA는 지난 15년 동안 쉬지않고 확장, 심화, 구체화 과정을 거쳐 왔다. 과연 이런 발전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충실하게 순종한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엄청난 변화중에 발전 성장하고 있는 ATEA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계속하고 있는 모든 연구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4. 평가

격변의 세기, 21세기에서 지난 15년의 변화는 누구도 기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15년 동안

평가자 자신도 안팎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울 만큼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여 오고있다. 물론 복음과 주님의 몸인 교회의 본질이 변하거나 색깔이 바랜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4차 산업화 시대란 컨텍스트에서 사역을 추진하고 있는 ATEA를 평가해 본다

먼저, 자연스러운 사실이지만 커다란 변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 모임을 가졌을 때의 선교사들 대부분이 지금도 활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쌓인 연륜에 비해 너무 빠르고 커다란 변화가 사역의 내용과 규모에서 엄청나게 진행되었다. 상전 벽해(桑田碧海)란 옛말을 무색하게 하는 변화가 있어 오고 있다. 단순히 신생아가 15세의 소년으로 성장했다는 변화가 아니다. 안면은 홍안 소년인데 팔뚝은 권투 세계 챔피언 같은 힘이 있는가 하면, 다리는 우주를 주르르 다니는 로봇과 같이 순간에 지구촌을 누빌수 있고, 백발의 머리털은 인공지능(AI)을 넉넉히 따라갈 듯하다. 여기에 3차 산업화 도 못 미치는 지역에서 1-2차 산업화 시대부터 4차 산업화 시대로 경총 변한 컨텍스트에서 몸부림 치며 성장 발전하여 온 ATEA로 평가 한다.

한편으로는, 15년 동안 의 격변의 과정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크리스텐덤 교회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ATEA의 다른 한 면을 지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과 크리스텐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하는 사역에 골몰한 선교사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줄 알지만 지금도 건물을 짓고 예배당 중심의 교회 개척에 몰두하고 있지 않는가? 선뜻 나라 중심의 관점(Kingdom Perspective)으로 전환에 용기를 내지 못하는가? 왜 성직자 목사의 틀을 벗어나 평신도 사역자 상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는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목사 양성은 안개 속에 가리워진 목표 지점과 같다. 이렇게 평가하는 자신도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5. 제안

바울 선교사처럼 아시아에서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를 방황하거나 비두니아 가려고 애쓰지말고 환상을 좇아 마게도니아로 건너는 배를 타기를 (행16) 제안한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비전을 따라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던 밀레도에서(행20) 선교사의 용기와 헌신을 부탁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분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는 우리의 주군이신 만왕의 왕에게 충성만이 요청된다.